

[바둑]

“바둑 배운 초등생 ‘감성지수’ 높다”
바둑 관련 학위 논문 출간 ‘뽐’

명지대 대학원 3편 출간

세계 유일의 바둑학 연구기관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대학원에서 바둑 관련 학위 논문이 최근 대거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논문은 삼인삼색의 석사 학위 논문 세 편. 이혜정(26)씨는 초등학교 4학년 194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친 검사와 실험을 거친 끝에 '바둑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 지능발달과 바둑지식습득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바둑을 배운

학생이 배우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감성지수(EQ)가 향상되었음을 입증했다. '한국바둑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양종호(46)씨는 한국바둑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 석사학위를 받게 된 백우평(63)씨는 '순장바둑 모형이 아동의 바둑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백씨의 실험에 따르면 전통 순장바둑으로 학습한 아동들이 일반 바둑을 배운 아동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연필뉴스

“썬돌 아닌 ‘푸석돌’ 될 뻔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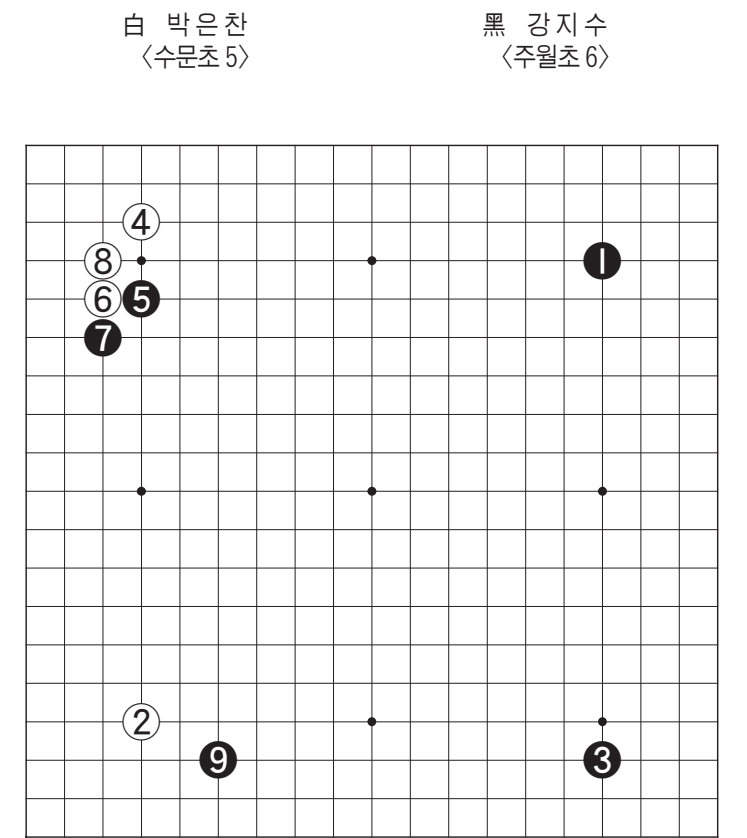
“우승했지만 불만족스럽습니다.” 새해 이세돌이 우승을 갈무리한 3회 도요타텐소배 결승 3번기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1국을 장수 9단에게 내주고 2, 3국을 내리 따내는 역전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세돌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뜻밖에도 ‘불만족스럽다. 운이 좋았다’고 대국을 평가절하했다.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1, 3국이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평가하는 1국은 한 마디로 압축

도요타텐소배 우승 이세돌 9단

장수와 결승대국 ‘불만족’ 고백

하면 ‘부동심’이 무너진 것이다. “1국을 선점하겠다고 집착한 것이 오히려 흔들림을 자초했습니다.” 2국은 이겼기 때문에 논외다.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던 3국은 어떻게. 그가 내린 결론은 역시 ‘할라미달’이다. “초반 정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잘 두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의외로 장수 9단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이 판은 한마디로 제가 잘 났다가 보다는 상대편이 무너진 대국이었습니다. 새해 첫 국제대회 승전보로 한국바둑의 승풍을 띄운 이세돌 9단은 올해 목표를 ‘중국대도’로 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기사들과의 대국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3~4월께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세계무대에 도전하겠습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많은 학부모나 관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회가 바로 교육감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감배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난해 12월 9일 동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 지역 최초로 교육감배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열려 앞으로 어린이바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바둑은 그중 초등학교 최강부 결승전으로 주월초등학교 6학년 강지수군과 수문초등학교 5학년 박은승군의 대결이다. 강지수군은 KBC사장배 최강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이지역 초등부의 최강자이며 박은승군은 어린이대회에서 연재나 4강준에 드는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요즘의 어린이들의 바둑을 보면 기본기가 충실하고 마무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것을 든 강지수군의 적극적인 포석이 눈에 띈다. 5부터 9까지는 전성기 때의 조현연 9단이 즐겨쓰던 포석으로 한 때 대우했던 포석이 다 보여준다. 다음 어떤 진형이 될 것인지 궁금한 장면이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루이 9단〉

〈조혜연 7단〉

‘반상 女帝는 하나’ 루이-조혜연 빅뱅

바둑계에는 영속할 듯한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이른바 바넘너 ‘절대지존’인 이창호와 루이-나이에이 9단이다. 그러나 천하의 이창호도 간혹 추격자들에게 무릎을 꿇기도 한다. 이창호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검객들은 이세돌, 최철한 등 2인방. 여류바둑을 평정하고 있는 ‘철녀’ 루이-나이에이 9단은 사정이 사투 다르다. 추격자들이 선명하게 부각된 이창호와 달리 그녀에게는 아직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 우주공간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는 그녀에게도 속살이 있다. 눈엣가시 같은 한 사람만 없으면 두 주고 주고 편할 것 같다. 그런 양측이 바로 조혜연 7단이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바둑계에서는 빅뉴스다. 조혜연이 누군가, 그녀는 국내 여류기사를 가운데 루이-나이에이를 꺾은 유일한 협객이다. 조 7단은 지난 2003년 11월 열린 여류국수전에서 루이-나이에이 9단을 단칼에 쓰러뜨리고 여류강자로 떠올랐다. 당시 바둑계는 루이의 철혈성이 무너진 일대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다음 달 5일 열리는 12기 가그린배 프로 여류국수전 결승(결승 3번기)무대에서 만난다. 루이와 조혜연이 지난 29일 이 대회 준결승 문턱을 나란히 넘어선 것이다. 이번 대국의 관전 포인트는 여류국수전 등 3대 여류기전을 모두 석권한 루이 9단의 독주를 조 7단이 제지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루이 9단의 낙승이 예상된다. 루이는 이미 명인전 도전기에서 신에 이차해 3단을 맞아 선점을 올리는 등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이 대회 결승전에서 조 7단을 꺾은 데 이어 삼삼화재 예선을 비롯 조 7단과의 7차례 맞대결에서 6승을 낀다. 단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라이벌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루이 9단으로서의 조혜연과의 대국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다’는 또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전적이라는 객관적인 분석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달 5일 가그린배 여류국수전 결승 격돌

루이 “컨디션 최고조” 조 “철혈성 깨졌다”

대외 결승전에서 조 7단을 꺾은 데 이어 삼삼화재 예선을 비롯 조 7단과의 7차례 맞대결에서 6승을 낀다. 단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라이벌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루이 9단으로서의 조혜연과의 대국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다’는 또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전적이라는 객관적인 분석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시 최고

아래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4. 30.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일 이를 개입하면 권리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 지방 법원 판사 정 회 영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목록.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목록.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목록.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